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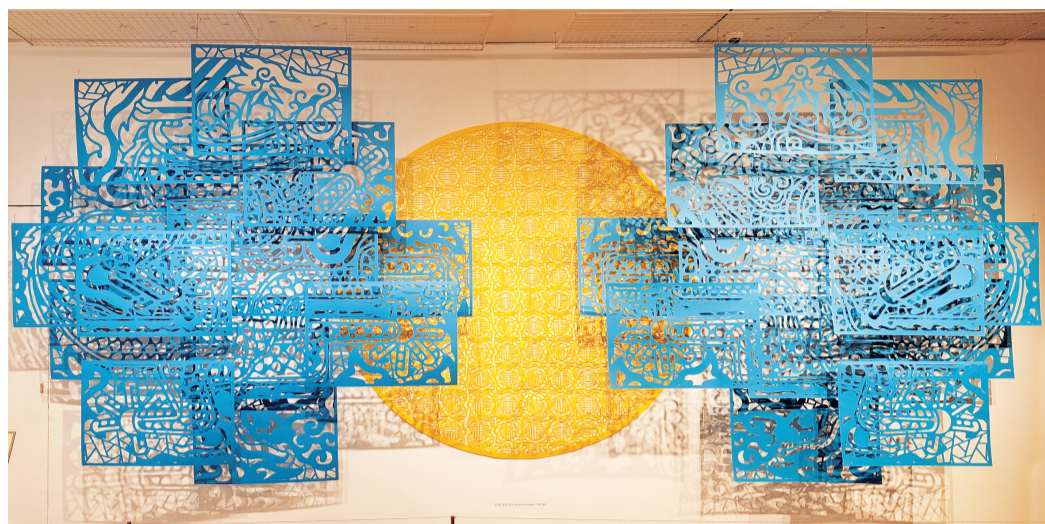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무등갤러리에서 진행중인 전시 중 광주전통민화협회 회원들의 작품 '운룡도'.

# ‘청룡의 기운’ 담은 전시 만나볼까

**신세계갤러리**  
'용이 여의주를...' 2월13일까지  
송영학·이수진·정병 등 7명 참여

**무등갤러리**  
광주전통민화협회 '동행 II'  
10일까지 전시... '雲龍圖' 눈길



신호운 작 '중첩된 산수-Happy blue dragon'

용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상이하다. 어떤 이는 특유의 생김새 때문에 다소 무서워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상징한다. 몸을 흔들며 물속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은 웅장함과 위엄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구운몽' 같은 소설이나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용을 친근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용을 모티브로 다양한 관점의 이색적인 두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신세계갤러리의 '용이 여의주를 얻듯이'와 10일까지 선보이는 무등갤러리의 '동행 II'는 각각 친근한 용, 전통적인 용을 대변한다. 모두 용을 모티브로 하지만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초점화하고, 다채로운 기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갑진년(甲辰年)을 뜻하는 '용'을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지난 2일 시작된 신세계갤러리 전시는 보는 이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다. '용이 이렇게 귀엽고 깜찍했다!' 싶을 정도로 고전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갤러리에 들어서면 설치,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등 여러 기법으로 묘사된 용의 이미지들

신호운 작가의 '중첩된 산수-Happy blue dragon'은 양쪽 두 마리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이미지화했다. 비상하는 용을 설치 작품으로 구현했는데, 가운데 여의주는 어둠을 찢고 솟아나는 붉은 해처럼 느껴진다. 청색의 용들이 여의주를 통해 선사하는 것은 따스함과 밝음이다. 무엇보다 기하학적 무늬들로 표현된 청룡의 몸체는 작가의 고도의 상상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다가온다.

여의주를 환한 미소로 그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황중환 작가의 '일상이 여의주'는 화폭에 담긴 모든 여의주가 웃는 얼굴로 표현돼 있다. 고전적 의미의 여의주는 신분상승, 출세와 같은 다소 무겁고 진지한 의미를 표상하지만 화폭에서 보여지는 여의주는 발랄, 상큼, 귀여움 그 자체다. 작가는 아마도 많이 웃고 많이 배려하는 것이 성공과 같은 출세보다 더 귀한 여의주라고 말하는 듯하다.

힙합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위 작가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선보인다. 카툰 캐릭터를 토대로 키치한 분위기를 살린 다채로운 채색 스타일

이 특징이다. '갑진년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용', '바위올림'은 각각의 제목을 이으면 한 의미로 수렴되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어느 학생은 '50자평 나도 평론가'란에서 '갑진년의 갑은 푸른색을 의미하고, 진은 용을 상징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작품을 감상한 후 용은 무서운 동물로만 생각했는데 이곳 그림에서는 착하게 나와서 좋았다"고 평을 남겼다.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광주전통민화협회가 주관하는 '동행 II'는 회원 21명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 기획과 총괄은 성혜숙 광주전통민화연구위원장이 맡았으며, 회원들은 청룡의 해를 앞두고 전시를 준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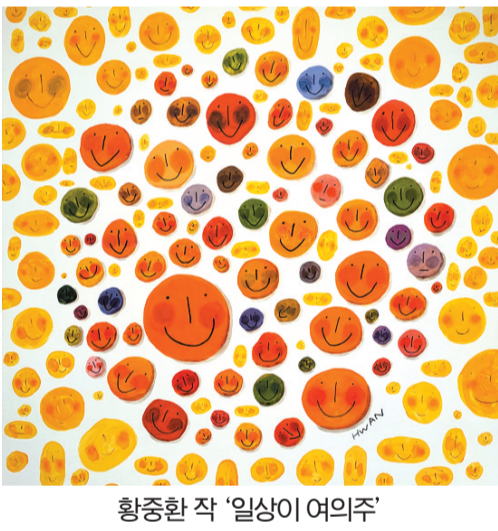
압도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雲龍圖' (13m×1.6m). 구름 속 용을 모두 18개 판넬로 이어붙인 대작은 용이 지닌 전통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그것의 의미까지도 아우르고 있어 오래도록 발길을 붙든다.

참여 작가로는 고재희, 권은근, 김남영, 김영지, 김명희, 김은숙, 방은주, 서은선, 신인순, 안보영, 오혜숙, 유다희, 유연이, 이은미, 이지현, 임미경, 전미란, 정미숙, 최계숙, 최미영, 최애경 등이다.

운룡도에는 모두 청, 백, 적, 흑, 황 5개 색깔의 용이 묘사돼 있다. 모든 용 그림에는 공통적으로 여의주가 등장한다. 또한 이미지화된 운룡도는 대체로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돼 있다.

성혜숙 광주전통민화연구위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와 용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용에 대한 사유 등도 엿볼 수 있다"며 "청룡의 해 모두 승천하는 용처럼 길한 기운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중환 작 '일상이 여의주'

## 문화예술단체 '영택스' 13일까지 예술가 모집

문화예술단체 '영택스(Zerotax·대표 박주영)'가 영택스 아티스트로 2024년 활동할 예술가들 공개 모집한다. 오는 13일까지 영택스 SNS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택스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단체다. 영택스 크루원으로 선정되면

각 분야별 활동관련 지원사업 정보 외에도 문서 작성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이외 활동방향성에 대한 컨설팅 혜택이 주어진다.

영택스는 지난 2019년 광주 지역의 3개 밴드를 시작으로 22년 총 50여 명의 아티스트를 모집해 활동했다. 광주·전남과 수도권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맡아 왔다. 2024 영택스

크루에는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청년 아티스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음악, 미술 등 장르 불문.

박주영 대표는 "현재 수도권에 문화예술 인프라와 기회가 편중돼 있어,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역 예술인들이 로컬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지역으로 시선을 넓히는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운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모차르트·바그너·슈트라우스 'Festival'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16~17일 전남대 민주마루...김한 협연



김한

18세기 빈 고전파를 대표하며 천재성으로 불멸의 곡들을 남긴 모차르트, 오페라 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리하르트 바그너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관현악법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향시 분야에 업적을 남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까지.

18-19세기를 대표하는 세 예술가들의 곡으로 갑진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린다. 오는 16-17일 (오후 7시 30분) 양일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펼쳐지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Festival' 이 바로 그것.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가 막을 연다. 서울대 작곡가와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 디플롬과정을 마치고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에서 수석카펠마이스터를 역임한 홍석원이 지휘자를 맡는다. 여기에 협연자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출연할 예정이다.

김한은 11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2008년 일본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독주회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제, 영국 시터던던 페스티벌 등 유수의 음악회-축제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클라리넷 연주자다.

예원학교와 영국의 이튼칼리지 길드홀 음악연극학교를 졸업했으며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 등을 거쳐 왔다. 핀란드 방

송교향 악단 제2수석 클라리넷 주자를 거쳐 현재 파리국립오페라 클라리넷 수석.

이외 바그너가 쓴 유일한 희극 오페라 곡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 전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해피엔딩의 희극으로 따뜻한 인간사를 담은 곡. 또 슈트라우스가 귀족생활의 단면을 담은 '장미의 기사 모음곡'도 밝은 분위기 기로 신년 공연을 장식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세 음악가의 활기찬 곡들로 '축제'를 연상시키는 작품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새로운 해를 맞이해 밝고 쾌활한 분위기의 곡들이 관객들에게 활기찬 기운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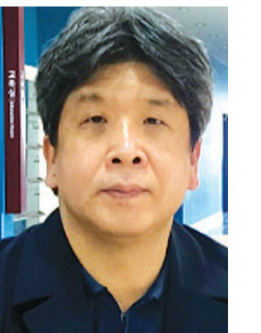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풍요로 가장된 공필...그 세계를 그려내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작품집 '온빛소설문학' 펴내



김경희



손병현

"작가가 지켜나가야 할 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고 사람다움의 온기를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의 정치나 이념 문제는 물론 눈앞의 모든 고통과 손을 잡고 그 세계를 그려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아마 그게 작가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최근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김경희·소설가협회)가 작품집 '온빛소설문학' (심미안·사진)을 펴냈다. 올해 16회째 발간한 작품집은 저마다 독특한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김경희 회장은 이번 작품집 발간 배경에 대해 "팬데믹 현상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점에서도 현실은 여전히 풍요로 가장된 공필 속에 갇혀 있다"며 "우리는 소설이 승자의 몫이 아니라 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고투 속에서도 쓰고 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서는 모두 14명의 14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漂流 湄의 壽峯' (정음식), '꺼어 나지 마' (김현주), '시질' (손병현), '겨울한 밤고요한 밤' (김경희), '레몬' (박경화), '생존반영' (서용좌), '팔죽' (임수정), '결에 가만히 있어도 위로가 되는' (성보경), '리갈 양복집' (김미웅), '검은 비' (김지원), '예성당' (박일우), '사포마을' (이무성), '물어라 쇠' (김만성), '설화의 귀

향' (손민두) 등이다.

이들 작가들 가운데는 등단 50주년이 넘는 소설가부터 이제 등단한 지 2-3년 된 신인에 이르기까지 창작 기간과 이력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무엇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설가협회는 지난해 작품집 발간 외에도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일도 병행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다녀온 것이 대표적. 봄에는 해남과 진도 등지의 예술, 문학터를 기행하며 유대감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을에는 보림사와 장흥지역을 탐방하며 사라져가는 시민들의 생활 터전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김경희 회장은 "우리가 속한 사회 또한 저마다의 욕망으로 표류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작가는 온몸으로 소설을 쓰며 현실을 견디어내고 나아가야 한다"며 "회원들 간의 유대와 창작활동은 인간적인 소중한 삶의 무엇들을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수많은 이유의 기폭이 되고, 그러한 시대를 증언하는 문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